

상장기업 지난해 고전... 매출·영업익 '뚝'

광주·전남 19개사 결산실적 분석... 한전 제외 매출액 하락

대우플러스·조선내화 영업익 적자...코스닥 6곳 순이익 -243억

광주·전남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지난해 경영 실적은 어땠을까. 상당수 기업들은 심각한 실적 부진에 시달리면서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상장사, 실적 온도차=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9일 코스피 상장 광주·전남 기업 13개사의 '2017년 결산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매출액은 64조 568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0.64% 감소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64.15% (3조3131억원), 61.65%(2조8184억원) 감소했다.

매출액 비중이 높은 한국전력공사(92.8%)를 제외하면 매출액은 1.97% 감소했고 순이익은 20.41% 감소했다.

분석 대상기업 13개사 중 12개사는 순이익 흑자를 냈지만 대우플러스는 적자를 기록했다.

대우플러스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지난해 영업이익(개별 기준)이 전년도보다 38억2700만원 감소해 적자 전환했고 당기 순손실도 77억7100만원을 기록했다.

보해양조는 지난해 영업이익(개별기준)

이 24억8100만원으로 전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매출액은 988억5100만원으로 14.03% 줄었으나 당기순이익은 111억 1500만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조선내화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에 견줘 370억2300만원이 줄면서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당기순이익도 62억6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3.26%나 감소했다.

전년도에 비해 영업이익이 늘어난 곳은 광주신세계(0.43%), 화천기공(119.00%), 동아에스텍(32.50%), 한전KPS(58.51%), 보해양조 등 5곳에 불과했다. 2016년보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높은 곳은 보해양조(7.44%포인트), 한전KPS(4.77%포인트), 화천기공(2.81%포인트), 광주신세계(0.21%포인트) 등의 순이었다.

금융업인 광주은행과 우리금융, 금호타이어, 세화아이엠씨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상장법인인 세화아이엠씨의 경우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의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전 대주주 및 퇴직 임직원의 32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 광주·전남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2017사업년도 누적 영업실적 현황(개별)

| 회사명 | 매출액 | | 영업이익 | | | 당기순이익 | | |
|----------|------------|------------|-----------|-----------|--------|-----------|-----------|--------|
| | 2017년 | 2016년 | 2017년 | 2016년 | 증감율 | 2017년 | 2016년 | 증감율 |
| 광주신세계 | 209.647 | 210.424 | 56.290 | 56.047 | 0.43 | 47.846 | 45.554 | 5.03 |
| 대우에이텍 | 375.357 | 346.860 | 11.586 | 13.722 | -15.56 | 4.589 | 6.500 | -29.40 |
| 대우플러스 | 42.150 | 177.513 | -388 | 3.439 | 적자전환 | -7.771 | 1.154 | 적자전환 |
| 부국철강 | 146.119 | 140.175 | 1.302 | 2.583 | -49.58 | 2.318 | 3.166 | -26.78 |
| 화천기공 | 195.264 | 162.723 | 12.147 | 5.547 | 119.00 | 9.459 | 8.743 | 8.19 |
| 금호에이치티 | 165.485 | 189.734 | 11.008 | 16.481 | -33.21 | 5.434 | 12.888 | -57.84 |
| 금호산업 | 1,297.393 | 1,352.983 | 30.731 | 41.282 | -25.56 | 8.178 | 119.376 | -93.15 |
| 동아에스텍 | 223.311 | 157.137 | 21.047 | 15.885 | 32.50 | 18.632 | 12.322 | 51.21 |
| DSR제강 | 177.545 | 172.536 | 2.478 | 7.664 | -67.66 | 5.015 | 8.688 | -42.28 |
| 보해양조 | 98.851 | 114.987 | 2.481 | -5.665 | 흑자전환 | 11.115 | -6.284 | 흑자전환 |
| 조선내화 | 439.188 | 455.717 | -14.216 | 22.807 | 적자전환 | 6.262 | 11.036 | -43.26 |
| 한전KPS | 1,232.113 | 1,214.304 | 163.168 | 102.940 | 58.51 | 135.482 | 86.657 | 56.34 |
| 한국전력공사 | 59,965.739 | 60,289.581 | 1,553.554 | 4,881.540 | -68.17 | 1,506.852 | 4,261.986 | -64.64 |
| 함계(13사) | 64,568.164 | 64,984.675 | 1,851.189 | 5,164.272 | -64.15 | 1,753.411 | 4,571.786 | -61.65 |
| 전국(639사) | 11,003.776 | 10,053.066 | 1,006.304 | 675.990 | 48.86 | 794.379 | 504.036 | 57.60 |

※ 주) 금융업 제외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 제공>

협회가 제기된 상태다.

◇코스닥, 6개사 적자=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광주·전남 15개 기업의 결산 결과, 총 매출액이 9935억원으로 전년대비 2.22%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129억원으로 전년대비 62.26% 감소했고, 순이익의 경우 -243억원으로 적자가 지속됐다.

광 송·수신기 제조·판매업체 오이솔루

션은 전년도에 비해 영업이익이 68억원 감소하면서 적자로 돌아섰다. 당기순이익도 전년도보다 82억6700만원 줄어 적자 전환했다.

전년도에 비해 영업이익이 늘어난 곳은 서암기계공업, 애니엔, 골드퍼시픽, 남화토건, 와이엔텍, 와토스코리아, 우리솔루션 등이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44.08 (+14.50) ↑ 금리 (국고채 3년) 2.17% (+0.01)

↑ 코스닥 874.44 (+6.44) ↓ 환율 (USD) 1067.10원 (-2.50)

조선업 고용시장은 '한겨울'

3월 취업자 13만2천명 전년비 20.8% ↓...전남도 감소세

조선업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전남을 비롯, 전국 해당 업종 고용보험 가입자(취업자)가 크게 감소했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조선업종의 취업자 수는 13만2000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견줘 3만4700명이 줄어 20.8%의 감소율을 보였다.

전달인 2월(22.1%)보다는 감소율이 1.3% 포인트 줄었지만 취업자 수 감소율은 지난해 4월(22.1%)부터 12개월 연속 20%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업 종사자들이 많은 전남지역과 울산·경남의 해당 업종 취업자 수 감소세도 여전했다.

전남의 경우 취업자 수가 1만31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00명 가량(11.2%) 취업자 수가 줄었다.

울산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800명(23.5%), 경남도 2만1100명(23.9%)가량

취업자 수가 줄었다.

전북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운데 900명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조선업종 취업자 수가 700명까지 줄었다.

취업자 규모가 가장 큰 제조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00명 줄었다. 선박·항공기·철도차량을 만드는 '기타운송장비' 부문을 제외하면 제조업은 기계·식품 제조업 등의 성장에 힘입어 지난해 취업자가 3만1500명 늘었다.

자동차제조업에서 취업자 수는 미국의 판매 부진으로 지난해 5200명 줄었다. 지난 1월 취업자 수는 2200명이, 2월에는 3300명이 각각 작년 같은 기간보다 줄면서 감소 폭이 확대되는 추세다.

전 업종을 망라한 3월 전체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29만7000명) 증가한 1297만8000명을 기록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익산국토청 조직개편

건설안전국·지역발전팀 신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호남지역 건설현장과 지하시설물 안전업무를 전담할 '건설안전국'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지역발전지원팀'을 신설, 운영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건설안전국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던 기존 건설관리실의 기능을 강화, 지하 시설물에 대한 안전업무도 담당한다. 건설관리과와 건설안전과 등 2개과로 나눠 운영된다.

또 건설지원과 내 지역발전지원팀을 신설하고 익산청 직원과 전남·전북도 파견 직원으로 구성, 운영에 들어간다. 익산청과 지자체와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지역의 요구사항을 수렴,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익산청은 올해 '전라도 정도 1000년'과 전라도 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축제 지원방안, 지역별 맞춤형 사업 등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김철홍 익산국토관리청장은 "익산국토청이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고 지역발전을 선도해 가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지난 5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주 공모전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6000건에 육박하는 아이디어가 접수 돼 참가 열기가 뜨거웠다. <보해양조 제공>

보해 천년주 이름 6000대 1 뚝은 '천년에'

네이밍 대상 김영복씨...디자인은 조선대 이준혁씨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해 출시할 기념주 공모전이 전국에서 6000여 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될 정도로 큰 관심을 얻으며 성황리에 마쳤다.

보해양조는 네이밍 공모전에 접수된 약 6000건 중 김영복 씨가 접수한 '천년에(愛)'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브랜드 디자인 부문 대상은 조선대 시각디자인학과 이준혁 씨가 제출한 작품이 뽑혔다.

네이밍 공모전 대상자인 김영복 씨는

'전라도 정도 천년을 축하하는 기념주가 전라도의 역사와 정신을 담아 우리 모두에게 사랑 받는 작품이 되길 기원한다'는 뜻을 담아 '천년에(愛)'란 이름을 떠올렸다고 밝혔다.

브랜드 디자인 부문 대상자인 이준혁 씨의 '청년해로' 디자인은 천년이 가도 청년이고 싶다는 의미를 익살스런 그림과 글씨체로 표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네이밍 부문 금·은·동상은 각각 나우진 씨의 '한잔즈', 신연호 씨의 '오매(五薨)

천년', 좌성택 씨의 천해향으로 결정됐다. 브랜드 디자인 부문에서는 채이경, 노유진, 김동오·이아현 씨가 각각 금·은·동상 수상자로 확정됐다.

지난 5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은 보해 공모전에 참가하면서 전라도 정도 천년의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난 2월 26일 시작한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주 공모전에는 6000건에 육박하는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공모전 참여 열기가 뜨거워 접수기간이 16일에서 23일로 일주일 연장되기도 했다. /최재호기자 lion@

"더 나은 세상 향한 아이디어 찾아요"

삼성전자 '투모로우 솔루션'...4개분야 내달 17일까지 공모

삼성전자가 사회공헌활동의 하나인 '2018 삼성 투모로우 솔루션' 공모전을 시작한다.

'삼성 투모로우 솔루션'은 사회의 불편함을 찾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직접 사회에 적용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진행해온 사회공헌 공모전이다.

이번 공모 분야는 ▲교육 ▲건강·의료 ▲환경·안전 ▲지역사회 등 4가지로, 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해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다른 아이디어 공모전과 구별된다.

결선에 진출한 팀은 아이디어를 현실

화하는 과정에서 지원금 200만원과 삼성전자 임직원·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종 수상자는 아이디어 부문과 임팩트 부문으로 나뉘며 수상팀에게는 총 2억원 상당의 상금과 지원금이 지원된다. 이 중 임팩트 부문상은 과거 수상팀 중 올해 가장 큰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한 팀에게 주어진다.

공모전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회 음을 17일 오후 6시까지 삼성 투모로우 솔루션 홈페이지(www.tomorrow-solutions.org)로 접수하면 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상의, 평등·소초산단 업체 기숙사비 지원

광주상공회의소는 광산구와 평동산단과 소초산단, 소초농공단지 입주 업체 직원들의 기숙사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업체들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 비용이 20% 이상으로 나머지 월세 산단단지 주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해 연속연수 5년 미만 직원들의 기숙사로 제공하면 입주

료(월세)를 기업당 10명 이내, 1인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임차비의 80%)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임원 중 임사 6개월 미만 신규 채용자 비율이 20% 이상으로 나머지 월세 20%와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주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증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내 집같은 편안함! 고대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분 높은 수품으로 업그레이드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30년 전통의 한방식, 당일 주종 오찬 정식

알찬행사를 위한 연회장 새마을 위한 명상 시설이 갖춰진 동·서구회의 연회장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홀플러스 건너편

광주맛집 since 1981 37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